

■ 독일서 열린 '개발도상국 가족계획 정책' 세미나

제3세계, 식민주의 가족계획 정책 극복해야 한다

자연 이용한 전통적 피임법, 서구식 현대기술에 밀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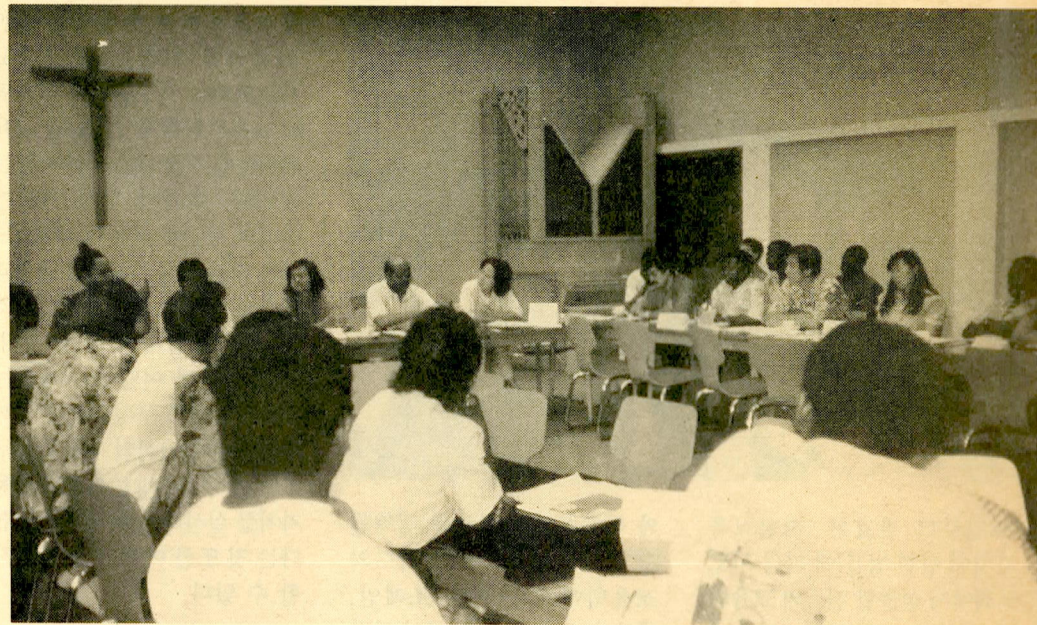
2차대전 이후부터 실시된 서구의 현대식 가족계획 정책이 제3세계의 전통적인 피임방법을 단절시키면서 제3세계 여성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카셀의 미카엘 교회에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 '개발도상국의 가족계획-그것은 단지 여성만의 일인가'에 참석한 제3세계 연구자들은 '개발도상국의 가족계획이 그 나라의 전통과 상황을 무시한 채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나이지리아, 한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가족 계획정책에 대해 발제를 했다.

2박3일의 토론을 가지면서 참석자들은 서구중심의 현대적인 가족계획 기술은 여성의 희생을 가속화하며 제3세계를 신식민지화 하는 방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각자 자기나라의 전통적인 방법을 연구, 개발해 살려나가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인도의 인구정책을 소개한 데브자니는 인도야말로 '제1세계 의학기술의 실험장이 되고 있는 제3세계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1951년부터 가족계획 정책을 실시한 인도는 미국의 저렴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족계획을 실시해야 했는데 이때



▲ 회의장에 모인 제3세계 연구자들.

수입된 미국의 자궁내 장치를 사용한 많은 인도 여성들이 후유증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1977년 이후에는 대대적인 외국 원조와 정부의 강력한 시책으로 가족계획사업이 확산됐다. 80년대 중반에는 피임하는 가정에 혼수자금에 맞먹는 액수인 50루피에서 1백루피의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먼 시골까지에 가족계획사업이 수용됐다.

원래는 임신방지 수단이었던 가족계획방법이 점차 첨단 기술로 발전해가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 기술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에 개발된 '라파라스코피'는 아직 안전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과 옷 등의 경제적 유인책으로 인도의 가난한 여성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또 최근 널리

퍼지고 있는 '실리콘'이라 불리는 피임장치(Nord Plan)은 길이 4cm 정도의 실리콘 끈지를 여성의 겨드랑이 근처의 팔근육 속에 5년간 삽입하는 기술인데 역시 안전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단 한번 삽입하면 의사만이 처치할 수 있다. 아직 부작용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양심적인 의사들은 권장하지 않고 있다.

데브자니는 인도의 여성들이 가족계획 사업속에서 선진국에서 개발된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도를 실험하기 위한 모험으로 이용 당해 왔으며 첨단의 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상실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제3세계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의 가족 계획정책을 소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줄라 존코시(라이프지히 대학)는 전통의 단절 문제를 발제의 초점으로 제시했다.

줄라는 자신의 부족인 폰도스 족이 서구와는 매우 다른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족계획에 있어서도 안전하면서도 전문지식이나 돈이 필요없는 자연을 이용한 전통적인 피임방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폰도스 족은 개방적인 성문화를 갖고 있다. 어른은 어린 아이 앞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성지식을 얻는다. 8세부터 춤을 추며 성 호기심을 보이는 자유교제가 시작되는데 이때에는 삽입하지 않는 성교놀이가 허용된다. 여자 14세, 남자 16세 때 정식 성교가 허용된다. 토요일 저녁에서 월요일 아침까지 남녀가



▲ 남아공 발제자 줄라.



▲ 인도 발제자 데브자니.

사용한다.

줄라는 아프리카 전체가 자기나라의 전통을 잃은 채 서구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폰도스 족은 아직까지 많은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의 발제자 킨베 아노바이는 전통적인 나이지리아 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기 때문에 자식이란 많을 수록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따라서 서구사회에서 나온 가족계획의 개념으로 나이지리아 사회를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즉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서양에서는 아이를 적게 낳기 위한 가족계획이 필요할지 모르나 아프리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나 서양의 가족계획은 아프리카 전통을 무시한 채 소자녀가치관을 주입하고 여성만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전통적인 피임법은 돈도 안들고 특별한 지식이 필요없는 데 반해 현대 서구에서 수입된 가족계획 방법은 그와 반대의 댓가를 요구한다고 말한 나이지리아 발제자는 "먹을 것이 없는 데 콘돔 살 사람이 어디 있나?"고 반문.

이 회의에 참가한 제3세계 연구자들은 각국의 전통적인 가족계획 기술이 단절되는 현상을 식민주의의 현상으로 파악하면서, 남녀간의 경험의 공유를 위한 대화, 전통적 기술의 개발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합의점을 찾았다.

(독일 카셀·김효선 기자)

함께 지낼 수 있지만 여자가 귀가하면 엄마가 처녀성을 상실했는지를 검사한다. 만약 이때에 임신을 했다면 남자 집에서 여자집에 염소(rinder)를 선물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도 벌받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다 해서 멸시받는 일은 없으며 오히려 가족이 늘었다는 의미에서 축하해준다. 남자가 여자집을 방문하고 싶을 때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린더를 선물한다.

3개월간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 성인식을 치르면서 전통적인 의사나 의녀로부터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한 피임방법 등 실제적인 성 교육을 받는다.

출산 후 3년간의 수유기 동안에는 성교를 하지 않으며 피임을 위해 약초로 만든 약이나 나무뿌리로 만든 자궁내 장치를